



전자부품도 국제화를 서둘러야 한다

이형도 / 본회 비상근 이사
삼성전기(주) 사장

국내 전자부품업체에게 93년은 불황타개와 체질개선을 위해 총력을 경주한 한해로 기억될 것 같다.

핵심부품 및 소재 국산화를 통해 사업품목을 고도화시키고 ISO-9000 인증을 획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많았지만, 주요 경영과제의 하나인 국제화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고 생각한다.

지난 11월초 정부가 직접 나서서 「신경제 국제화전략」을 발표할 정도로 국제화는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기업은 물론 국가전체가 국제화를 서두르지 않는 한 선진국 진입은 물론 NICS·아세안·중국과의 경쟁이 어려운 현실인데도, 국내 전자부품업체의 국제화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먼 것이 사실이다.

국내 전자부품업체에 몸담고 있는 경영자의 한사람으로서 국제화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시급한 경영과제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두가지 사례를 소개하려 한다. 하나는 일본 전자부품업체의 국제화 동향이고, 다른 하나는 아세안의 부품국제화에 관한 것이다.

일본 전파신문사의 분석에 의하면 92년말 현재 일본 부품산업 전체의 해외생산비율은 28%에 달하

는데, 이는 일본 국내 생산규모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세라믹콘덴서의 경우는 94년에 해외생산비율이 50%를 넘을 것이란 전망이다.

일본 전자기기업계의 해외생산 Shift는 93년을 분기점을 일단락 될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따라 일본 부품업체의 해외생산 이전도 94년에는 거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일본 부품업체의 동남아 진출은 이미 일단락 되었고 93년은 중국진출이 본격화된 해였다. 알프스전기의 경우 중국에 93년에만 2개 생산거점을 설립한데 이어 94년초에 1개 생산거점을 추가 설립하기로 결정했으며, TDK와 마쓰시다도 1~2개 생산거점을 설립했다.

또한 알프스전기와 TDK는 현재 25%, 39%에 이르는 해외생산비율을 95년에는 50%까지 높일 계획이다.

한편 아세안은 일본계 진출메이커에 의해 세계적 부품공급 기지로 부상하였는데, 말레이시아가 그 대표적인 국가이다.

말레이시아의 부품생산 규모를 보면 트랜스, 소형모타, 스위칭전

원은 이미 한국을 추월했고 전해 및 세라믹콘덴서, 고정저항기는 한국의 절반수준에 달한다.

그러나 모든 아세안 국가들이 그렇듯이 말레이시아도 부품생산을 일본계 진출메이커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부품별 의존도를 보면 트랜스, 소형모타, 스위칭 전원, 자기헤드, 스위치는 100%이고 전해 및 세라믹콘덴서, 고정저항기, 콘넥터도 95% 이상을 일본계가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아세안의 부품생산을 일본계 진출메이커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우리는 아세안 부품메이커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싼가격·좋은품질로 무장한 「신일본메이커」와 경쟁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더이상 국내에만 안주해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엔고에 의한 반사이익도 기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선진기업들은 핵심부품 등 원자재와 자금, 기술, 인력 등의 생산요소를 국내가 아닌 세계적 차원에서 최적으로 짜맞춰 가는 세계경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국의 전자부품업체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제 우리도 경쟁력과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과감히 세계로 진출할 수 밖에 없다.

이와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공동화를 막기 위하여 국내에서 충분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품목과 사업을 찾아서 생산체제를 확립해 두어야 한다.

이러한 두가지 과제를 성공적으

로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술적인 역량과 경영능력을 갖추는 물론이고, 경영의 모든 측면에서 합리화와 수준을 올리는 준비, 즉 국내에서 먼저 국제화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전자부품산업의 본격적인 국제화를 위해서는 국내 부품인들의 적극적이고 새로운 인식은 물론이고, 전자산업정책의 중심을 세트

일변도에서 핵심소재 및 부품산업 쪽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

전자부품산업 전체의 국제화는 몇몇 부품메이커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부품인들 모두가 스스로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업계와 정부의 지원을 얻어 내도록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